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 2563호

주제 108(2019)년 1월 24일

### 국가적인 추모의 날을 정함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남긴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었으나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며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모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을 국가적인 추모의 날로 한다.
2. 해마다 7월 8일과 12월 17일에 조기를 띄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한 거족적인군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뜻 깊은 울림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시대로 승화된 격동적인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과 의지를 불태우고있는 이 시각은 민족을 보다 큰 비약으로 이끄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가 우리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명하신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진로이며 승리의 표대이다.

우리모두 돌이켜보자!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과 련속적으로 펼쳐진 경이적인 화폭들이 얼마나 온 겨레를 충격과 환희, 격정과 락관으로 세차게 뒤흔들었는지 기억한다.

내외의 지지와 격찬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새차례나 마련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어 북남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갔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침체한 군사적긴장상태가 크게 완화되어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감돌던 삼천리강산에 평화의 봄기운이 내뿜어졌다.

북과 남은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힘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었고 각계각층 동포들속에서 전례없이 고조된 통일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더욱더 북돋아주었다.

지난 시기의 몇년, 몇십년동안에도 이룩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단 한해동안에 이룩된것은 세인들이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이며 경탄할 기적이 아닐수 없다.

이 놀라운 사변적성공들은 북남수뇌분들의 확고한 북남관계개선 의지와 그 뜻을 받들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온 민족공동의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억측과 난관과 장애에도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폐부에 깊이 새기었다.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려는 뚜렷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어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세차게 맥동되고있다.

하기에 전체 조선민족은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적호소에 화답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변적인 해로 장식하려는 드높은 결심과 열의를 내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는 첫걸음을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지!**》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지!  
북남관계개선을 멈추없이 추동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다.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더없이 귀중하고 팔복할만한것이지만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에 비해볼 때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북과 남은 민족앞에 확약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지!  
해내외동포들은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한마음한뜻이 되어 북남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통일에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격변하는 조선반도정세를 외면하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제동을 걸려는 일체의 반통일적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에 살고 애국에 살며 통일에 살려는 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자!

2.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것은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다.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북과 남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반영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다.

북과 남은 침체한 대지지역에서의 군사적대결을 청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안아온 지난해의 성과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지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을 반대배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절절히 바라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조장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저지과란시키자!  
전체 조선민족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이내고 삼천리강토를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후손만대에 길이 번영하는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자!

3.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지!**  
북남사이에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민족적뉴대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북과 남은 첫걸음을 댈 북남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로의 리혜와 신뢰를 두터이해나가며 그 과정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적극 추동해나가지!  
북남선언들에 명시된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나가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려는것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녘형제들의 소망을 풀어주려는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의 발현이다.

내외반통일세력에 의하여 중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북남협력사업을 활발있게 전진시켜나가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진행하는것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짓부시고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지!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리간을 조장하려는 외부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종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4.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지!**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될 민족사적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가는 길이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

은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나가는 길이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가지!  
조국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통일론의를 적극 장려하며 민족성원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의의깊은 날들을 성대히 기념하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열기를 삼천리강토에 도도히 굽어치게 하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이여!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 격동적인 시대의 주인공들이여! 우리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빛을 뿌리고있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더 높은 목표가 우리모두를 부르고있다.

온갖 의용과 역풍을 과감히 박차고 세계가 격찬하는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우리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미증유의 천대업도 얼마든지 이룩할수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북남선언관철을 위한 거족적인군기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가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양형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리선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과 억척불변의 통일열의, 겨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맥동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 호소성으로 하여 전세계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겨레의 가슴을 통일열망으로 세차게 뒤흔들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원칙적인 립장과 제언, 그 실현방도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지난해 이룩된 고귀한 성과를 도약대로 삼고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는데 민족의 살길이 있고 겨레의 래일이 있다고 하면서 북남선언들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안고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저지과란시키며 선언관철을 위한 거족적인군기를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이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근본담보이라고 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서 이 원칙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 려 출발하여 겨레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찾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각계각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최대의 민족적과제로 되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발맞추어 나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계층별, 부분별, 지역별단체들사이의 연대활동을 적극화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1돐을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미있는 날들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하면서 마음과 힘을 합쳐 선언리행기운을 더욱 고조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같은 애국애족의 호소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군으로 호응해나섬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려정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는 려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는것을 기대하였다.

한편, 연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